

역사도시 부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The Future of Puyo, The Historical City

한필원/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Han Pil-Won

1. 부여읍의 이미지와 구조

1) 중심과 상징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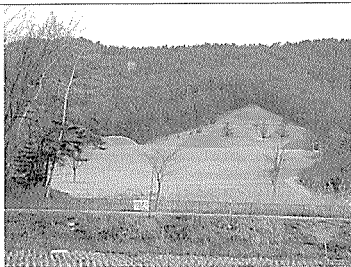
'무궁해 딸기'에서 '금동향로'로 버스정류장 안내대의 그림이 바뀌면서 행정구역은 논산군에서 부여군으로 접어들다. 그렇지만, 부여읍의 도시영역이 따라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좀더 차를 몰고 가야 '여기부터 부여가 시작되는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장소가 나타난다. 우측에 있는 능산리 고분군과 건너편의 오산(일명 오살미)마을로 규정되는 그 장소는 좁혀진 지형 탓인지 다소 긴장감을 준다. 능산리 고분은 1993년 우리를 놀라게 한 금동향로가 출토된 곳이고 오산마을은 한옥 일색의 풍경을 가진 농촌마을이다.(사진 1) 부여로 들어가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4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도시의 입구가 직감된다. 바로 이곳에 백제시대의 외성(外城)인 나성(羅城)이 있었으니, 역사의 두께를 가진 장소는 우리에게 항상 특별한 느낌을 주는 모양이다.

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입구영역에서 3.9km의 거리에 하나의 광장이 나타난다. 그리고 소방서가 위치한 이 노드(Node 1)에서부터 도심이 시작된다. 그런데 소방서 노드에서부터 도시공간 여기저기에 이빨 빠진 부분들이 목격된다. 그곳들은 발굴이 일어나고 있거나 발굴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비어있는 역사의 현장과 과도한 스케일의 가로는, 잘 짜여진 도시가 주는 긴장감 대신에 느슨하고 허한 느낌의 도심을 만들어내고 있다. 소방서 노드에

서 남쪽으로 부여군청이 있는 노드(Node 2)의 계백장군상을 향해 바라보면 중앙로가 완만한 경사를 따라 올라가며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스카이라인이 펼쳐진다. 가로수와 전봇대가 커보이는 4차선의 이 가로는 지나치게 넓고 건물로 잘 규정되지 않아서 짜임새가 없어 보인다.(사진 2) 더욱이 군청 노드에 있는 계백장군상 너머로는 도시화지역이 중단되며, 가로는 궁남지(宮南池)를 향해 무한대로 확산되어 버린다. 가로의 양쪽 면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백제로에서는 이런 허한 느낌이 더하다. 백제로의 동쪽 면은 반 이상이 부여중학교와 정림사지의 담장으로 구성된다. 한 도시 중심가로의 한 면이 거의 담으로만 규정되었다는 사실은 특이하다. 우리가 익히 아는 도심의 가로는 자극(磁極)처럼 엄청난 집적의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도면 1, 사진 3)

그러나, 공간적으로 허한 도시 부여가 맥없이 느껴지지만은 않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도시에 강력한 중심과 상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군청 노드가 바로 도시의 공간적 중심이다. 또한 여기에는 중요한 행정시설과 농협이 들어서 있어 도시기능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 광장의 가운데에 세워진 계백상은 중심을 확인시켜 주며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동쪽(박물관쪽)에서는 계백의 정면을, 서쪽(규암쪽)에서는 계백이 탄 말의 엉덩이를, 북쪽(소방서 노드쪽)에서는 계백의 좌측면을 바라보면서 도시에 들어선 우리는 자신의 방향을 확인하며 중심을 향해 이끌린다. 이렇게 계백은 죽어서도 도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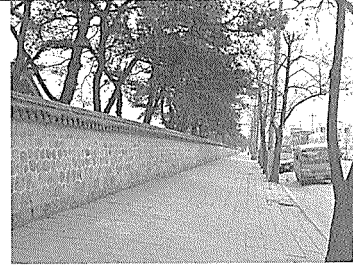
부여는 걷고 싶은 도시이다. 도시의 전체적 스케일이 걸을 만큼 만만하다. 이 도시를 걸으면서 우리는 반복되는 몇 개의 형태 이미지들을 만난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옥개석을 연상시키는 지붕형태, 그것은 관공서 건물에 빠짐없이 적용되었고 박물관과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대규모 건물에서는 물론 버스 정류장의 지붕까지 일관되게 쓰인 모티브이다.(사진 6) 백제외당 문양의 벽체는 군민체육관 등에 쓰였으며 산경문전(山景文壇)이나 구름무늬 전돌(渦雲文壇)의 문양은 보도블록 등에 나타난다. 이런 모티브들이 일관되게 형태와 장식요소로 나타나서 도시의 상징이 되고 있다.



〈사진 1〉 능산리 고분군



〈사진 2〉 중앙로



〈사진 3〉 백제로에 면한 정림사지의 담

2) 계획도시 부여의 구조와 현상

도시의 주산(主山)인 부소산에 있는 반월루(半月樓)라는 이름의 전망대(표고 75m)에 오르면 동쪽을 제외한 삼면이 강줄기에 휘감긴 시가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사진 5) 부여는 백마강으로 불리는 금강의 하류에 의해 규정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동쪽으로는 부소산으로부터 금성산, 필서봉으로 이어지는 산지가 자리잡고 있어서 부여의 도시영역은 더욱 명료하게 정의된다. 이 영역 안에 백제시대에 계획되었을 도성(都城)공간은 일제시대에 새롭게 틀지워졌다. 일제는 백제의 역사성 위에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꿈꾸는 신도(神都)의 도시계획을 엮어 놓았다. 그후에는 금강의 수운(水運)이 쇠퇴하고 호남선으로부터 격리된 덕에 부여는 근대도시로 전환되지 못했다.(부여군지, 1987, p.59) 오히려 금강 건너편의 규암이 더 넓은 배후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일제시대 이후 부여의 정체(停滞)는 따지고 보면, 그후 지속된 백제에 대한 사적(史的), 정치적 왜곡과 과소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제시대 도시공간의 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일제에 의해 1940년대 초 도시계획이 추진되면서 관북리 구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시가지가 새로운 블록체계의 도심으로 이동되었다. 그리고 주로 단층 음식점 건물로 이루어진 구 시가지는 정체된 도시 부여의 상징적 장소로 남겨져 있다.(사진 4) 새 도심 구성의 핵심은 앞에서 군청 노드와 소방서 노드라고 표현된 두 개의 광장을 꼭지점으로 한 격자형 가로체계이다. 두 개의 노드를 이어서 중앙로가 이루어지고 그 동쪽에는 백제로가 나란히 형성되었다. 두 가로로 규정되는 남북 770m×동서 200m의 커다란 블록을 이 글에서는 도심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도심은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주거지가 위치한다.

이 두 선의 영향력으로 짜여진 도심 면의 내부도 규칙적인 작은 블록으로 분할되어 있다. 곧 두 가로와 나란히 남북으로 두 길이 나서 도심은 남북방향으로 긴 세 켜로 구획된다. 그리고 80~100m 간격으로 나란한 동서방향의 길들이 그 세 켜를 관통한다. 남북 방향의 세 켜 중 유독 가운데 켜만은 중

간에 또다시 동서방향의 길이 나서 도심은 균등한 크기의 작은 블록들로 분할된다. 그리하여 지도를 보면 공교롭게도 도심의 중앙에 일(日)자가 나란히 나타나 보인다.(도면 1 참조)

두 노드를 잇는 축(중앙로)에는 관공서, 교회, 시외버스 터미널 등 도시의 주요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필지가 가로면을 향해 좁게 분할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축의 응집력은 약하다. 가로에 면하면서도 동서향이 아닌 남향을 한 건물들 또한 그것을 말해준다. 도심 바깥쪽으로는 서쪽에 도심의 질서를 따르는 하나의 켜가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5~6m에 달한다. 부여는 주 가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과도한 스케일로 구성된 것이다.

자연조건에 의해 규정된 도시영역과 일제의 도시계획을 한꺼번에 벗어나는 도시광역화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도시의 광역화를 위해서는 도시영역의 삼면을 제한하고 있는 금강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1968년 준공되고 1997년 확장된 백제대교를 통해 도시광역화는 시작되었다. 도시를 서쪽으로 확장시키는 이 다리를 통해 금강 양쪽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각각 수행했던 부여읍과 규암리가 통합될 수 있게 되었다. 북쪽으로는 현재 규암면 합정리 일대에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아심차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곳을 부여읍과 잇는 사비교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 부여읍과 규암리, 그리고 합정리는 금강을 사이에 둔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서 도시기능을 분담하고 상보적인 역할을 하며 광역 도시체계로 발전할 것이다.

2. 도시건축의 상황

1) 부여의 도시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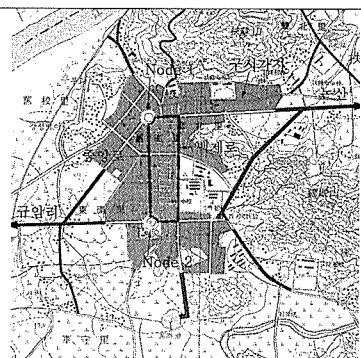
건축법 시행령 8조의 4항에 의하면 문화재에서 100m 이내에 지어지는 건물은 도시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부여군 건축위원회에서도 이를 근거로 신축 건물의 층수와 미관을 심의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부여 시가지는 5층 이



〈사진4〉 관북리 구시가지



〈사진5〉 부여읍 시가지 전경



〈도면1〉 부여의 도심구획

하의 건물로, 특히 부소산성 주변은 3층 이하로 제한되어왔다. 결과적으로 부여의 시가지는 주로 저층의 상업용 건물들로 채워지고 있다.

일제시대에 계획된 도시답게 부여에는 당시의 건물들도 적지않게 남아 있다. 특히 4번 국도에서 소방서 노드에 이르는 가로변에는 그러한 건물들이 독특한 가로경관을 만들고 있다.(사진 7) 그러나 일제시대의 근대건물들은 점차 현대의 상업건물로 대체되면서, 상징적이거나 기념비적인 건물의 경우 대개 전통 양식의 건물로 변환되고 있다. 예외라면, 부소산기슭의 부여 객사(客舍) 뒤에 자리잡은 부여문화재연구소 건물 정도일까. 김수근 선생이 박물관으로 설계한 이 건물은 전통을 인용한 도시의 상징을 채용하지 않았다. 1967년 신문 사회면의 톱기사를 장식한 이 건물의 왜색 시비는 건축적 사건에 일반인들이 가세한 몇 안되는 일 중 하나이다.

‘근대에서 전통으로’, 이러한 양식의 변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도시의 중심인 군청 노드이다. 이 장소에는 농협, 읍사무소, 군청, 군민회관이 북동쪽 모퉁이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군청 노드를 둘러싸고 있다. 이들 건물의 공통점은 외관상 전통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직설적으로 전통양식을 표현하고 있는 건물은 읍사무소로, 일층의 기단 위에 한옥의 2층이 올라앉은 형식으로 지어졌다. 반대로 전통건축의 양식을 추상화시켜 가장 세련되게 표현한 것은 농협건물이다. 그러나 이 건물의 전통 역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며 도시건축의 진실성과는 무관하다. 이 사실은 건물 뒤편의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이면 쉽게 알게 된다. 한옥지붕의 형태적 특징을 차용한 전면과 달리 건물의 후면은 아무 생각없이 밋밋하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청이나 군민회관에서 지붕만은 한옥의 지붕 또는 정림사탑의 옥개석을 확대한 모양이다. 1978년 신축된 부여군청의 자리에는 1944년에 세워진 벽돌조 2층의 근대 건물인 옛 청사가 있었으나 군청은 이 도시의 건축이 겪어온 양식상의 변화를 한 몸으로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이 노드에서 멀지 않은 곳의 가로변이나 이면 주거지에서도 벽체는 근대성을 지향하면서도 지붕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듯 전통건축의 지붕을 엮은 집들이 간헐적으로 들어서 있다.(사진 8~10)

최근에 지어진 몇몇 건물을 제외하면, 부여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도시건축은 무표정하고 특징없는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상업건물들이다. 부여사람들이 ‘박스’라고 부르는 이런 건물들은 요즘 우리 도시들에서 흔히 보이는 ‘튀고 싶어하는 건축가에 의한 튀는 건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변에 겸손히 적응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지도 않다. 백제로의 한 면도 상업이나 업무 용도의 저층 건물들로 규정된다. 이 도시는 물론 나아가 백제문화권의 상징인 정림사지를 길 건너편에 면한 이 가로면은 건물을 얹히기 매우 부담스런 장소임에 틀림없다. 바라건대, 정림사지에 대한 배경막처럼 겸손한 가로면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건물 높이만 유사할 뿐 건물의 디자인, 재료, 색채에서 통일성이 없는 면이 형성되어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통신의 건물도 그러한 통일성의 결여에 기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림사지의 동측으로 가서 도시를 배경으로 돌보이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려는 우리의 시도는 헛수고로 끝난다.(사진 11)

2) 도시주거의 현 주소

부여에서는 한가지 행복한 일이 있다. 우리가 대도시에서 너무도 식상한 고층 아파트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러나 부여의 주거문제를 건축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주거지가 도시블록과 전통마을이라는 두 가지의 대비되는 맥락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두 조건에 부합되는 주거유형을 각각 모색하는 것은 부여의 도시발전에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도심은 직교좌표의 블록으로 정형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반면 도심을 벗어나면 주변 지형조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여 형성된 전통마을들이 분포한다. 도심과 그 주변 블록의 주거지에는 대개 1970년대의 소위 집장사집들이 있다. 소방서 노드의 남동쪽 모퉁이에 지어진 수정맨션이라는 주상복합 건물은 예외에 속한다. 1~2층은 상가이고 3~5층은 아파트인 이 건물은 부여 도심에서 도시주택으로 의도된 유일한 예인 것 같다. 도심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 군수리 같이 범람원(汎濫原)에 위치하거나 산기슭 완사면에 자리잡은 마을들이 분포한다.



(사진6) 버스정류장의 지붕



(사진7) 일제시대의 건물들



(사진8) 부여읍사무소

전통마을공간에 있는 재래주택은 대개 일자형의 농가이지만 중정리의 민칠식씨 집처럼 격식을 갖춘 대규모의 주택도 존재한다. □자형의 평면을 가진 민칠식씨 집은 건물과 마당이 독특하게 결합된 구성을 가지고 있다.(도면 2)

한편으로, 부여에서는 도시주거의 유형을 모색함과 더불어 그것을 문화관광 상품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민칠식씨 집같이 격식을 갖춘 주택이나 문화적인 인물과 연결되는 주택은 문화관광의 대상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로 도시의 규모는 부여보다 크지만 도시의 입지조건, 공간구조, 하물며 유명한 문인과 정치인의 연고지라는 점까지 부여와 유사한 중국의 사오싱(紹興)에서는 관광 대상의 대부분이 주택이다.(사오싱은 루신(魯迅)의 고향이며 조우언라이(周恩來)의 원적지이다.) 그 도시에서는 전통주택, 특히 루신을 비롯하여 치우진(秋瑾), 조우언라이, 차이위안페이(蔡元培) 등과 관련있는 집들을 잘 유지관리하며 관련되는 자료를 전시하므로써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택은 그것이 인물과 관련되었을 때 많은 것을 암시하고 연상시킴으로 좋은 관광자원이 됨을 보여준다. 부여에도 '껍데기는 가라'로 우리에게 익숙한 신동엽 시인의 집이 동남리에 있고, 중정리에는 민칠식씨 집과 같이 격식과 풍부한 건축적 내용을 갖춘 전통주택이 있다. 그러나 신동엽 생가는 아랫한 기와로 지붕이 개량된 채 대문만 열려져 있을 뿐 집의 내부는 들여다 볼 수도 없어서 시인의 체취를 느끼고 확인할 도리가 없다. 민칠식씨 집은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수 중인 것을 보면 앞으로도 관리 잘 될 것으로 보이나 도대체 어디에 붙었는지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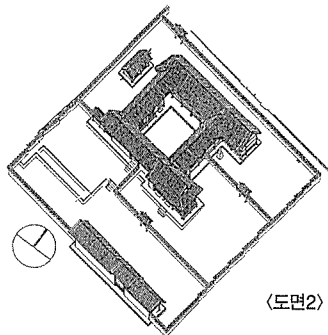
3. 문화관광도시 부여의 가능성

부여는 찬란하고 비장한 백제의 유적을 안고 있는 역사도시이며 한편으로는 배후 농촌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현대도시이다. 도시의 곳곳에서 유물을 찾고 발굴하는 시간에 한켠에서는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수박을

모아 파는 소란스런 경제적인 활동이 벌어진다. 도시민들의 관심도 유물에서 수박으로 옮겨가기 때문인지 근래에는 부여에도 소비문화가 급격히 파급되고 있으며, 주택문제와 주차난 등 현대도시의 부정적 요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무튼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성으로 머물러서는 안되는 현실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 도시가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성격으로 규정되는 데서 도시의 앞날에 대한 고민은 시작된다. 이 도시성격의 모순을 해결하는 길은 현대도시의 시스템을 갖추면서 역사성을 활용하여 도시의 경제적 기반으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곧 명실상부한 문화관광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 전체를 열린, 또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여에는 오래 전부터 박물관이 있어왔다. 부소산 기슭의 객사에 있던 박물관은 그 뒤의 김수근 선생이 설계한 건물로, 그리고 다시 동남리의 새 박물관으로 옮겨왔다. 이제 부여박물관은 시설도 좋고 볼 것도 많다. 그러나 도시 자체가 박물관의 역할을 하지 않고는 문화관광도시라고 할 수 없다. 사실 더 좋은 박물관은 이미 거리에 있다. 그러나 부여향교와 같이 잠겨있는 문화재들, 신동엽 생가와 같이 아무도 살지 않고 전시물도 없는 문화재들로는 열린 박물관을 이룰 수 없다.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문화재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 백제로에 면한 정림사지의 담장도 이런 의미에서 재고해보아야 한다. 그 담장의 높이가 고중에 의한 것이 아닐 바에는 걸으면서 5층 석탑이 시각적으로 접근되도록 낮추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버스 안에서도 담장만 보일 뿐이다. 더욱이 그 말끔한 담장은 보행욕구를 감소시키며 백제로의 가로수 밑에 모이곤 하던 노인들을 몰아내므로써 도시기능을 희생한 결과물이 아닌가?

도시의 가로가 활기있고 매력있어야 사람들이 걸으며 문화재를 찾게 된다. 물론 구아리(舊衙里) 시장, 여관 골목 등 특색있는 가로가 있지만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으로 활기있는 가로가 부족한 상태이다. 그리고 가로에는 도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도시의 상징인 두 노드의 중심녹지에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으면



〈도면2〉 중정리 민씨주택 (□자형 평면)



〈사진9〉 부여 농협

좋겠다. 교통신호체계를 조정하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문화관광도시가 되려면 도시에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다른 도시와 차별성이 없다면 굳이 그곳을 찾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세포와 같은 건축물들은 도시의 정체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체성있는 도시건축이란 통일성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도시건축이 이미지 요소의 차이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통일성에 기여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도제한이라는 소극적 정책에서부터 그러한 도시건축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부여에 관계있는 관료,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이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하겠다.

부여는 1960년 읍으로 승격한 도시이며 현재 3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점차 몸집이 커가는 도시이다. 하지만 현대도시로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미비하다. 한 예로 하수처리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동필 부근의 취수장으로 석목, 용정, 정동 등지의 하수와 축산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당국과 주민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왕필에 도시 전체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느 현대도시와 같이 주거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인구증가와 건축규제로 인해 주택재고가 부족해졌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인접한 논산에 주거를 마련하고 부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고 한다.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부여와 달리 논산에는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규암쪽으로 고층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등 해결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도시로서 부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주거양식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도시의 조건에 맞는 저층고밀의 특성있는 주거유형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가로변에서는 주상복합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통문제는 광역적으로는 통과교통인 4번 국도를 남쪽 궁남지 외곽으로 우회시키므로써 도시 교통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1997년 말에 결정된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완만한 경사도를 가진 도심의 교통과 주차문제는 자전거를 이용하므로써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본

다. 사실 80년대 이전에는 간선도로의 중앙에 녹지분리대가 있었으니 그만큼 폭을 차도에서 되찾으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시행 중인 노상주차 시스템과 같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앞으로 도시의 발전방향을 생각할 때, 부여는 일제시대 도시계획의 틀에서 어떻게 나름의 고유한 틀로 변형시키고 정착시켜 나가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마치 신궁의 터에 그 주춧돌을 디디고 삼충사(三忠祠)가 서듯이 일제의 도시를 딛고 새로운 현대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시점에 부여가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여는 현대도시로서 많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으나 또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씩 해결해가려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에서 부여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게 된다. 필자는 또한 부여의 입구인 능산리를 되스치며 '우리 나라의 문화관광도시로서 이만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는 없다.'라고 단정하고픈 유혹을 떨치기 힘들었다.

필자와 함께 도시를 답사하며 부여의 근현대사에 관한 사실(史實)들을 설명해줘 이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을 준 부여고등학교 국사 교사 장세욱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민청식 가옥 분석을 중심으로 한 건축입기 패러다임의 전환』(1997)
- 육원대 · 한남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부여군지』(1987), 부여군지편찬위원회
- 손정목(1990),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 안창모(1996), 『한국 현대건축 50년』, 도서출판 재원



(사진10) 가로변 건물(벽체의 근대성과 지붕의 전통성을 엿볼 수 있다.)



(사진11)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백제로의 가로면